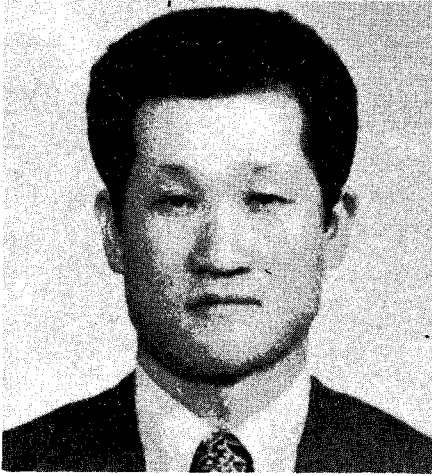


# 강한 추진력으로 발전적인 협회를 이끌 본회 회장 직무대행



## 유 종 래 부회장

전국 양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계협회의 새살림을 이끌어갈 유종래 부회장(회장직무대행)은 1933년 9월30일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 685번지에서 출생하였고 62년 전국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축산업계에 투신하여 약관31살에 대구축협 이사직을 맡을정도로 개성이 뚜렷하고 강한 분이다.

청렴결백과 강한 추진력과 사임에 대한 의욕은 66년 대구축협 조합장(33세때)의 중책을 맡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유유서의 질서가 뚜렷하고 경험이 존중되는 풍토에서 33세에 대구축협의 조합장을 맡아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그 능력이 그만큼 높이 평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년동안 조합장직에 있는동안 대구축협의 트레이드 마크로 통하였으며 당시의 복잡한 축협을 전국제1의 조합으로 성장시켜 놓았다. 현대식 사료공장 축산물 직매장, 당시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가금처리시설과 냉동

보관창고 서울에 계란직매장을 설치하여 경북에서 생산된 계란을 서울로 수출하여 경북 양계인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대하여 왔다. 이러한 불타는 의욕과 투지, 불의와 타협치 않는 성격은 농협 중앙회 감사로 72년 선임됨으로써 중앙무대에서까지 인정되게 되었다

75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표준농장을 설립하여 모든 양계인에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 오고 있는것은 양계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업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자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는 열성은 지금까지 업계의 여론과 의견을 모으고 집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여왔다. 많은 지도자 영웅들에서 많이 있듯이 유종래부회장도 AB형의 혈액형으로 그 개성이 너무도 뚜렷하다.

이제 협회가 연합회로 크게 발전하려는 어려운시기에 협회 운영을 맡게 된것은 어떤면에서 숙명적인지도 모른다.

협회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더욱 발전적인계기로 만들것인지는 과거 대구축협의 열키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제일의 조합으로 발전시킨 그 솜씨를 전국 양계인은 또다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일은 전 회원의 협조로 순탄이 이루어 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